# “90일동안 삼학 잘 연마해 人天의 지도자 되라”

##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동화사 방장)

金風括地山野瘦〈금풍괄지산야수〉요
月落潭空水底靜〈월락담공수저정〉이라.
玉轉機轉笑呵呵〈옥전기전소가가〉요
直下相逢不相識〈직하상봉불상식〉이로다.

금풍이 땅을 쓸어버리니 산과 들이 야윔이요.
달이 못에 떨어지니 물 밑은 고요함이라.
옥을 굴리고 기틀을 굴리니 ‘하하!’ 라고 웃는지라.
직하에 서로 만나니 서로 알지 못함이로다.

금일은 계사년 동안거 결제일이라. 구십 일간 정진과 독경과 계율의 三學(삼학)을 잘 연마하여 人天(인천)의 지도자가 되게끔 노력할지어다.

금생에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어느 생에 見性法(견성법)을 만나리오. 과거생으로부터 부처님 전에 正法(정법)의 인연을 간절하게 세운 자만이 이 견성법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니, 각자 화두를 성성하게 챙겨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그래서 크게 죽었다가 크게 살아나는 경지를 얻어야사 大丈夫(대장부)의 활개를 치게 됨이니, 모든 수행자들이 화두를 들고 의심하고 의심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분별심이 재[灰]가 되어서, 아무리 불을 갖다 대어도 탈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됨이로다. 그러면 가도 가는 줄을 모르고 밥을 먹어도 먹는 줄을 모르는 경지에 도달하는데, 여기에서 홀연히 형상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됨이로다. 공부인이 이러한 경지를 얻지 못할 것 같으면 부처님의 참 진리와는 십만 팔천 리 밖에서 헤매이게 됨이니, 석 달 안거 동안에 생사를 떼어놓고 부단히 참구할지어다.

昔日(석일)에 麻谷(마곡)선사가 章敬(장경)선사를 방문하니 장경선사께서 禪床(선상)에서 좌선중이셨다. 마곡선사가 좌선상을 세 바퀴 돌고 주장자를 들어 땅에 탁 내리쳐꽂고 서 보이니, 장경선사께서



“옳고, 옳다!” 하시었다.

즉시에 南泉(남전)선사 처소로 가 종전과 같이 남전선사의 좌선상을 세 번을 돌고 주장자를 들어 탁 땅에 내리쳐꽂고 서 보이니, 남전선사께서는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 하시었다.

이에 마곡선사가

“장경선사는 옳고 옳타 하시거늘, 和尙(화상)은 어째서 옳지 못하다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남전선사께서 이르시기를

“장경은 옳음이나, 너는 옳지 못함이니라. 바람의 힘으로 구으른 바는 마침내 무너짐을 이룸이로다.” 하시었다.

그러니 마곡선사가 문득 가버렸다.

모든 대중은 세 분 선사의 문답처를 아시겠습니까?

산승이 이 세 분 선사님들의 擧楊處(거량처)를 일일이 점검하겠노라.

마곡선사가 장경선사께서 앉아계시는 선상을 세 바퀴 돌고 서서 주장자를 들어 땅에 탁 내리쳐꽂고 서 보임에 장경선사께서 ‘옳고, 옳다!’ 하셨는데,

산승은, 다시 장경선사의 좌선상을 한 번 돌고 나오리라.

남전선사의 坐禪床(좌선상)을 마곡선사가 세 번 돌고 서서 주장자를 들어 땅에 탁 내리쳐꽂고 서 보이니, 남전선사께서는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 하시었다. 이에 마곡선사가 ‘장경선사는 옳다 하였는데, 화상은 어째서 옳지 못하다 하십니까?’ 하니, 남전선사께서 ‘장경은 옳거니와 마곡은 옳지 못하다. 바람의 힘으로 구으른 바는 마침내 무너짐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르시면,

산승은, 역시 좌선상을 한 번 돌고 가리라.

그러면 畢竟(필경)에 末后一句(말후일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颼颼淸風來未休〈불불청풍래미휴〉요,
山前松竹依然在〈산전송죽의연재〉로다.

불고 부는 맑은 바람은 쉼이 없음이요,
산 앞에 송죽들은 의연히 있음이로다.

## “결제는 업을 짓지 않는 것”

###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법전 스님



태암보장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결제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에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발걸음 발걸음마다 진실한 땅을 밟는다.”

구순(九旬)안거 동안 온몸으로 돌아다니며 나타났다가 숨고, 거두었다가 펼치며, 종횡무진으로 잡았다가 놓아주고,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는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으로 가라앉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미 상근기로서 옮긴 발걸음마다 진실한 땅을 밟은 것입니다. **〈중략〉**

하지만 일주문 바깥을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평탄한 대로는 아닙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 마디 언구(言句)를 옮길 때마다 그 앞에는 구덩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조사들이 던져놓은 뜻과 언구(言句) 마저도 때로는 함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선은 어떤 것 혹은 무언가에 의지해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화두를 붙들고 열심히 정진하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식(識)으로도 분별할 수 없고 알음알이로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곧바로 종지(宗旨)를 잃어버립니다. 성문 연각 조차 어수선하게 만들고 십지보살마저 우왕좌왕하게 만듭니다. 말길로 표현할 방법이 끊어지고 마음으로 헤아릴 도리가 소멸하였기에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마가다국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고, 유마거사는 비야리성에서 입을 다물고 침묵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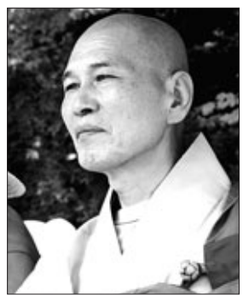
보보비신업(步步非身業)이요 성성비구업(聲聲非口業)이며 염염비의업(念念非意業)이라고 했습니다.

결제란 걸음마다 몸으로 업을 짓지 않는 것이며, 말마다 입으로 업을 짓지 않는 것이며, 망상으로 생각의 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제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고 묻는 납자에게 태암선사는 ‘발걸음마다 진실한 땅을 밟는다’ 고 하신 것입니다. 동안거 결제를 헛되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들고 있는 화두의 간절함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살무두공합장(菩薩無頭空合掌)하고
금강무각만장권(金剛無脚　張拳)이라
보살은 머리가 없어 공연히 합장만 하고
금강신장은 다리가 없어 넌지시 주먹만 펴보이네.

## “목숨 바쳐 단 일년이라도 정진하라”

###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한번치고 말하되,

대중스님들의 지난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결제해제를 얼마나 많이 겪어 오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 아득한 시절부터 일평생 수좌생활을 해온 수행의 장기성(長期性)이여!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많아 상식과 지식정보가 얽혀 그 복잡성(複雜性)이여!

계속 공부해 왔지만 느슨한 공부라서 풀리지 않고 진척이 없는 그 난해성(難解性)과 강고성(强固性)이여!

미리 답을 알고서 정진해온 탓에 헤매임 뿐이었던 그 어리석음이여!

짧거나 긴 세월동안에 이 네 가지 어려움 속에 굴복하지 않은 자가 얼마나 되리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잘못 지내온 일들을 다 버리고 단 일년 만이라도 아니 금년 동안거 한철만이라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 공부길이 있는데 왜 굳이 조사간화선 공부를 선택하셨습니까? 다른 길은 시원찮고 느슨하여 너무나 절박하여 이 공부를 위한 정진의 길을 택한 것이 참으로 살기위한 외길, 비상구라면 한번 몸을 던져 미쳐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불은 낙오자가 하는 것이며 율은 가면이 되기 쉽고 진언주력은 잡술이며 선사의 깨달음은 사기요 학생은 직장구함이 목적이 됐고 선생은 호구지책일 뿐이고 길고 짧은 어산소리 사주관상은 무당일이요. 나머지도 많지만 말해 무엇하리요.

이렇게 참선자는 전방위로 몸과 마음을 두리번거려서는 안 됩니다. 간화선자는 곧은 목지처럼 외길을 가야지 대사일번(大死一　)이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이것도 조금해보고 저것도 조금해보는 공부 바로위의 내용과 같이 간화선의 길과는 확연히 어긋납니다. 일체종지가 함께 열리는 무생법인의 확철대오와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도 안 되고 어려워서 이런 판 저런 장으로 기웃거리다가 결국 목하 무정법(無正法) 무정견(無正見)의 비빔밥 장사가 된 세상 아닙니까?

목숨 바쳐서라도 단 일년 만이라도 제대로 한길을 가며 정진 또 정진합시다. 환희의 미소가 있기를.

## “생각이 보리심이면 곳곳이 극락세계”

###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화엄경’ 에 “탐진치를 한꺼번에 버리고 항상 불법승에 귀의하여 생각 생각이 보리심이면 곳곳이 극락세계이니라(頓捨貪瞋癡 常歸佛法僧 念念菩提心 處處安樂國)”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락세계를 이루기 위한 수행에 있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망상심의 출현이며, 이 망상이 항상 일어나는 까닭이 바로 삼독으로부터 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헤아릴 수 없이 일어나는 나라고 하는 집착과 욕망 때문에 본마음, 즉 실상의 이치를 알아차리지 못해 진실을 보는 눈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닫는다고 하지만 도에 어찌 소리가 있겠으며,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힌다고 하나 마음에 어찌 색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수행납자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 헤아리는 분별심 또한 꺾어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두공부를 하면서도 화두를 마음으로 헤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알음알이가 병통으로 작용하여 깨침을 방해하는 것이니 깊이 인지하도록 해서 알음알이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알음알이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한다면 바로 망상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하기에 오로지 수행자는 분별의 망상을 다 놓아버리고, 상선약수(上善若水)를 노래한 노자의 마음으로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상태에서 실상의 법칙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산승이 결제대중을 위하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동안거 동안 깨달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놓아 버리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정진삼매를 지속해서 한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크게 죽어 다시 살아나는 사중득활(死中得活)의 순간, 곧 바로 화두타파의 대폭발을 일으켜서 대사일번건곤신(大死一番乾坤新)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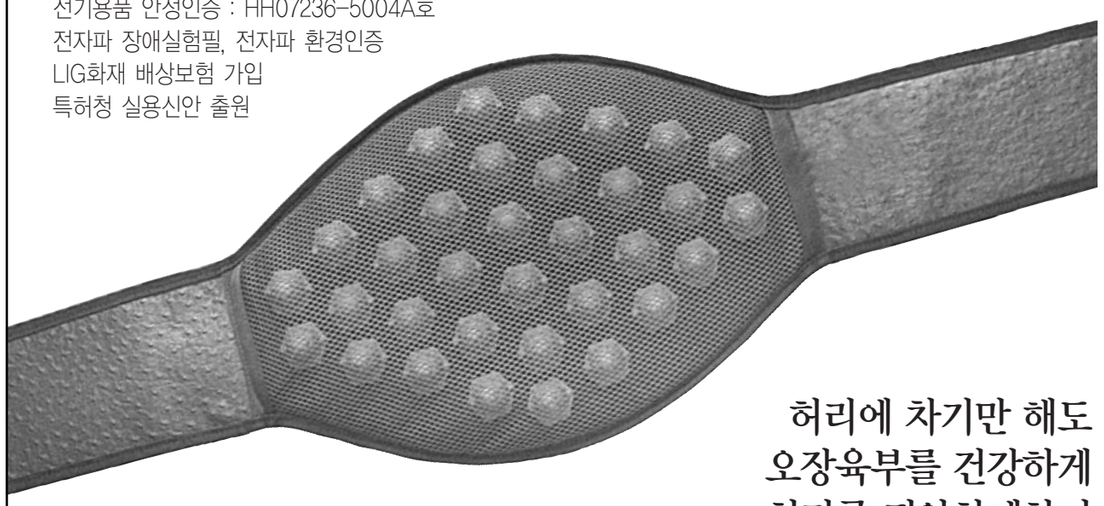
미요심원도수춘(未了心源度數春)
번차부세만준순(　嗟浮世　逡巡)
기인득도공문리(幾人得道空門裡)
독아엄류재세진(獨我淹留在世塵)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